



광주 도시경쟁력을 높이자

도시 디자인 또는 경관 등의 용어는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시민들은 국내·외 여행을 다니거나 혹은 책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통해 좋은 도시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도시의 디자인과 경관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걷기 편하고, 여유가 넘치며, 시각적 장애를 느끼지 못하고, 자연과 인공 조형물이 조화로운 도시야말로 모두가 바라는 도시의 모습일 것이다.

이제는 최근 중시되고 있는 도시 생활의 질(QOL=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곧 광주 도시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 또 도시 디자인과 경관은 도시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단순히 디자인과 경관이 뛰어난 도시가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의 역사와 특성 등을 간직해야만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참여도 불가피하다.

전문가 제언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열망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 역시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지속성이다.

도시를 지속시키는 요소에는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치와 요인들이 작용한다. 또 도시를 지속시키는 디자인의 주체는 도시에서 사는 시민들 개개인과 다양한 집단, 그리고 시민공동체이다. 이들이 더 지속하는 환경을 선택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이 도시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

광주의 도시디자인 결과물은 생성과정과 유지관리, 그리고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디자인(Natural Design)을 해야 한다. 도시의 인공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됐으며, 그에 따른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고온화시키는 주범이다.

광주는 지혜로운 생태도시,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통합디자인(Integrated Design)을 해야 한다. 광주가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가 자연의 일부라고 인식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의 활용과 폐기에 있어서 자연환경에 주는 부

벤치 하나에도 자연과 문화가 숨쉬게

1. 프롤로그
2.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중요하다
3. 지속가능한 도시를 '디자인'하자
4. '공공프로젝트'가 미래 결정한다
5. 에필로그 - 전문가 좌담

광주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시도해 지난해 초 제정·공포한 '공공디자인 조례'는 지금까지 도시 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을 새롭게 바꾼 계기가 됐다. 그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디자인이나 경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그쳤고, 따라서 고층 아파트, 넓은 가로 등 '봉어뿔'과 같은 모습이 도시 곳곳에 들어서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같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최초로 '공공디자인'의 제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조례는 교량이나 공원, 공공기관 청사 등 공공건축물과 벤치나 가로등,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등 가로시설물 등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건축물과 시설물의 디자인이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가로등이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환경이나 역사, 문화 등 광주만의 정체성을 지닌 소재를 이용해 전반적인 도시디자인에 나서는 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국 지자체 첫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공공건축물·가로 시설물 심의 의무화

'아름다운 광주 만들기' 시민들 나서야

과거에 비해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공공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벤치나 가로등,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등이 최근 광주 시내 곳곳에 설치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이들 시설이 단순한 기능적 차원에서 벗어나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소재가 돼야 한다는 사고를 시민들에게도 심어주고 있다.

천경석(39)씨는 "지장이 고흥에 있어 매달 1~2번 광주를 찾는 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버스정류장이었다"며 "과거에는 그저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 햇빛이나 비를 피하는 장소였던 버스정류장이 세련미를 갖춰 한층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는 공공디자인과를 신설했다. 각 실과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각각 디자인했던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해 11월 광주디자인센터가 호남·제주권 지자체 디자인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교육에 나서는 등 광주가 호남지역 공공디자인의 '메카'로 정착하는 데는 이러한 시대적인 추세에 대한 한 발 앞선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9월 수립된 경관계획도 현재 수정·보완 중이다. 이 계획을 통해 광주는 개별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 아닌 도시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보존이나 보존해야 할 자원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자원, 창출해야 할 자원을 각각 분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가 도심 내에 숲길이나 생태 골목길 등을 조성해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물론, 도시에 자연그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도 주목받을 만 하다.

이러한 정책이나 계획이 실현에 옮겨지면서, 그동안 단조로운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대변되는 도시는 녹지와 물 등 자연자원과 건축물 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도시 디자인은 광주시민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모범적 사례 창출을 통한 민간으로의 광범위한 확대를 시도해

야한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불가피하다. 디자인에 대한 사고는 극히 다양하며, 사업의 우선순위에도 논란이 일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 같은 '자연'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시도는 멈춰서는 안 되며, 꾸준히 되풀이되면서 방향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관 및 디자인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일본의 요코하마시가 도시디자인팀을 창설한 것은 197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년 전의 일이다.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져 일관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지금의 요코하마시가 디자인됐다.

시민들 역시 방조자나 소극적인 주체가 아니라 쓰레기나 담배꽂초 투기 금지, 불법주차 안 하기 등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광주시나 각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각종 계획과 정책에 참여해 평가하는 데 이르기까지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생태도시·환경수도 지향

지속가능 통합디자인으로

광주를 미래 창조도시로”

답을 최소화해야 한다. 덧붙여 도시의 신경망인 교통동선(차와 사람 그리고 서비스 등)을 체계화시켜 움직임 최소화하고 그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을 억제해야한다.

광주가 사회적 장소로서 역사도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디자인을 만들어 내야 한다. 도시는 시간과 사건들이 중첩돼 만들어진 캔버스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역사속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장소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한다. 따라서 광주는 역사적 장소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기억의 장치들을 디자인하여 누구나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무대가 돼야 한다.

미래의 창조도시로서 광주의 지속성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디자인(Bio-Design)도 필요하다. 사람과 같은 생명체처럼 도시 또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도시는 숨을 쉬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매우 복잡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는 우리 모두 지속가능한 미래의 도시이기를 열망한다. 이 도시에서 우리들의 후손이 자자손손 광주의 자긍심을 간직하면서 건강하게 그들의 사회, 문화적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기를 기대한다. 우리들의 열망과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광주를 자연환경의 일부로 생각하고 후세를 생각하는 개발과 자원 활용을 고려하자. 더불어 우리 도시가 우리들에게는 물론이고 인류가 와서 머물고 싶은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 그 속에서 노력하고, 그러며, 춤추는 광주를 만들자.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은 지금의 우리와 우리들 후손의 활동 무대를 섬세하게 만드는 대작업이다.

에코홈

생태친화적 생활용품

에코홈은 환경친화적인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원료와 공정을 사용하여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 후에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분해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용량	가격
에코홈 세제	1.5L	1,500원
에코홈 세제	3L	2,800원
에코홈 세제	5L	4,200원
에코홈 세제	10L	7,800원
에코홈 세제	20L	14,500원
에코홈 세제	30L	21,200원
에코홈 세제	50L	35,500원
에코홈 세제	100L	70,500원

에코홈은 환경친화적인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원료와 공정을 사용하여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 후에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분해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코홈은 환경친화적인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원료와 공정을 사용하여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 후에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분해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코홈 이태리가구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50-15 에코홈이태리가구 (동쪽) 02-253-7500-7501

02-253-7500 (주요) 02-253-7501 (주요) 02-253-7502 (주요) 02-253-7503 (주요)

1. "건강한 삶에 필요한 친환경 생활용품" -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품"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원료와 공정을 사용하여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 사용 후에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분해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후에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분해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 에코홈이태리가구는 100% 친환경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후에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분해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4. 에코홈이태리가구는 100% 친환경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후에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분해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